

독서지도안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삶 보통 사람의 '난중일기'

청소년을 위한 쇄미록

오희문 지음 | 서윤희 풀어씀



▶ 『청소년을 위한 쇄미록』 독서지도안

책 소개

『청소년을 위한 썰미록』은 조선시대 양반 오희문이 임진왜란으로 고향을 떠나 가족과 함께 떠돌아다니며 쓴 9년간(1591년 11월 27일~1601년 2월 27일)의 피란 일기이다. 한마디로 관리나 군인이 아닌 보통사람의 ‘난중일기’이다.

오희문의 『썰미록』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류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역사 기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난중일기』와 『징비록』이 장수와 조정 관료의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다루었다면, 개인의 일상을 기록한 『썰미록』에는 전쟁의 참혹함과 피난지에서의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오희문의 가족과 친척, 이웃, 주변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16세기 말 조선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이 책은 오희문이 9년 3개월(3,368)이라는 긴 세월 동안 쓴 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쓴 글이다. 각 장의 끝에 있는 ‘쉽게 읽는 썰미록’에는 16세기 조선시대 생활상과 임진왜란의 경과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자료를 읽으며 시대상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적 자료를 통해 시대상 발견하기

역사적 자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대의 시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라야 한다. 이 책 여기저기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과 조보(관에서 발행한 신문), 노 비문서 등 일차적 역사 자료가 언급되어 있어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책을 통해 역사적 자료를 통해 당대의 시대상을 발견하는 방법을 고민하 고 연습한다.

2. 임진왜란 당시 군인이나 관리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삶 살펴보기

임진왜란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삶을 드러 낸 역사적 기록물로 『난중일기』, 『징비록』,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다. 그중 오희문의 『쇄미록』은 평범한 양반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러한 까닭에 이 책 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에 담긴 그들 의 삶을 통해 당대 사람들의 희노애락, 특히 전란 속에서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삶의 모습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오늘날의 관점에서 양반(오희문)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이 책은 계급사회인 조선에서 양반인 오희문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준다. 현감의 아버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청을 들어주는가 하면, 관청 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신분 사회가 아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 면, 부정한 청탁과 횡령 등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런 오희문의 행동이 전란 중에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양반으로서 당연한 삶의 일부였는 지 생각해 보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희문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본다.

4. 당대(조선 전기 신분 사회)의 시각에서 양반과 노비의 삶(관계) 이해하기

이 일기의 '서(序)'에서 오희문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에 이어 '노비'가 등장한다. 노비는 양반들의 재산이며, 양반들의 손과 발을 대신해 주는 중요한 존재였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오희문이 노비를 대하는 상반된 모습과 주인들도 어쩔 수 없는 노비들의 삶의 양상을 들여다보며,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5. 전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2022년 2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2023년 10월)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이유야 어쨌든, 우리는 그 전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한다. 이 책은 오희문이 임진왜란으로 가족과 함께 떠돌아다니며 쓴 9년간의 피란일기이다. 9년이라는 전쟁이 오희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처참했는지 상상해 보고, 이 책 곳곳에 묻어 나는 전쟁의 끔찍한 모습과 폐해를 확인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1. 임진왜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보자.

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다룬 다음 글을 읽고 전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가만히 피란민들의 행렬을 바라보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다. 우선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듣기만 해도 온몸이 저릿저릿해지는 기분이었다.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외치는 소리, 자원봉사자들이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소리, 피란민들이 짐을 끄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쟁 하면 으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리들 역시 분명 전쟁의 소리였다.

— 『전쟁이 말하지 않는 전쟁들』(김민관 지음, 갈라파고스, 2023)

3. 표지에 적힌 다음 글귀들을 보고, 책의 내용을 짐작해 보자.

인터넷 없이 전쟁 소식을 듣는 방법? / 노비에게도 재산이? / 양반이 노비의 제사를 지내 준 이유는? / 전쟁 중 농사짓고, 누에 치고, 벌 키우고, 매사냥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고? / 조선 여성도 유산을 물려받았을까? /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결혼을? / 조선시대에도 ‘축의 금’이 있었다? / 전쟁 중에 과거 시험을 봤다고?

4. 다음 제시된 글을 읽고 오희문이 자신의 일기에 ‘쇄미록’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를 상상해 보자.

오희문은 장수, 홍주, 임천, 평강에서의 피란 생활을 끝내고 한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일기로 기록하고, 이를 책으로 엮은 뒤 『쇄미록』이라고 이름 지었다. ‘쇄미록瑣尾錄’이라는 제목은 『시경』의 “쇄혜미혜瑣兮尾兮 유리지자流離之子”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보잘것없이 떠도는 사람의 기록’이라는 의미다.

전쟁 당시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의 생활상 살펴보기

1. 오희문 가족이 피란 중에 식량을 구한 방법을 기록해 보자.

2. 전쟁 중 오희문과 그 가족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열하고, 오희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지 짐작해 보자.

① 오희문 가족이 겪은 어려움:

② 오희문에게 가장 큰 어려움:

3. 내가 오히문이라면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① 가장 힘든 상황:

.....

②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

.....

.....

4. 표지에 나열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적어 보자.

질문	찾은 답	찾은 곳 ()쪽~()쪽
인터넷 없이 전쟁 소식을 듣는 방법?		
노비에게도 재산이?		
양반이 노비의 제사를 지내 준 이유는?		
전쟁 중 농사짓고, 누에 치고, 벌 키우고, 매사냥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조선 여성도 유산을 물려받았을까?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결혼을?		
조선시대에도 '축의금'이 있었다?		
전쟁 중에 과거 시험을 봤다고?		

역사적 자료 읽기

1. 다음 지도는 『쇄미록』에 나오는 주요 지역이다. 임진년(1592년) 오희문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자.



2. 원균에 관한 다음 글을 바탕으로, 원균에 대한 오희문의 기록과 징비록의 기록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고,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쇄미록』 속 원균에 대한 기록	『징비록』과 『선조실록』에 실린 원균에 대한 기록
<p>1592년 5월 다음날에 이충이 전에 경상 우수영에 갔다가 수군절도사 원균이 또 적선 24척을 불사르고 적병 7명의 수급을 베었다는 소식을 담은 서장(편지)을 은밀히 지니고 이 고을을 지났다. 그를 우연히 만나 근심이 자못 풀렸다.</p> <p>1592년 7월 26일 우수사는 이달 8일에 전라도의 좌우 수군과 함께 진격하여 적선 80여 척을 나포했는데, 전후로 7백여 명의 수급을 베었다. * 우수사는 원균, 해당 전투는 한산대첩으로 실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는 이순신과 이익기이다.</p> <p>1597년 4월 5일 오늘 조보(朝報)*를 보니, 통제사 원균이 왜선(倭船) 2척을 포획하고 왜적 65명의 수급(首級)을 베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p> <p>— 『쇄미록』 1권, 5권(오희문 지음/신병주 해설,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p>	<p>우수사 원균은 비록 수로가 좀 멀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배가 많고 또 적들이 하루나 이틀 동안에 몰려온 것도 아닌데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위세를 보이고 단 한 번만이라도 싸웠던들 적들은 뒤를 염려해서 그토록 몰려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데 먼 데서 바라보기만 했지 나와서 교전한 사람은 없었다.</p> <p>— 『징비록』(류성룡 지음/이민수 옮김, 을유문화사, 2014)</p> <p>김수가 치계하였다. “수영(수군의 진지)의 조라포·지세포·울포·영등포 등 진이 이미 텅 비었는데 거제 현령 김준민만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켜 죽음으로써 기약하고 있습니다. 원균은 수군 대장으로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내지로 피하고, 우후 우응신을 시켜 관고를 불태우게 하여 2백 년 동안 저축한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게 하였습니다.”</p> <p>— 『선조실록』 선조 25년(1592년) 6월 28일 기사</p>

① 원균의 평가에 대한 차이점:

.....

.....

.....

.....

② 차이가 발생한 이유:

.....

.....

.....

.....

3. 전쟁의 참상을 담은 다음 영상과 『청소년을 위한 쇠미록』에서 드러난 전쟁의 참상을 비교해 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epalPBWbREs>

① 『청소년을 위한 쇠미록』에 드러난 전쟁의 참상:

.....

.....

.....

.....

② 영상에 드러난 전쟁의 참상:

.....

.....

.....

.....

③ 두 상황 속 민간인의 공통점:

.....

.....

.....

.....

4.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청소년을 위한 췌미록』에 드러난 노비의 삶을 서술한 다음, 노비의 삶과 현대인의 삶의 차이점을 적어 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oWm1r8P9iEg>

.....

.....

.....

.....

.....

.....

.....

.....

.....

.....

.....

1. 『청소년을 위한 새미록』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드러난 조선 전기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서술하자.

- 이번에 외갓집에 갔을 때는 외가의 노비들을 다시 나누었다. 진작에 출가해서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된 어머니에게도 외갓집 재산인 노비 가운데 어머니 몫이 있었으니, (중략) 이 제야 제대로 받게 되었다.
- 윤겸이 살고 있는 처가댁에 전염병의 기운이 만연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단아가 죽은 지 백 일째 되던 날에는 아내가 무당을 불러 징과 북을 치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
- 2월 추운 날이 이어졌다. 아내가 아픈데 그 증세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매우 걱정스러워 밤에 녹두죽에 월경수를 섞어 세 번 먹였다.

조선 전기의 사회문화적 특징:

.....

.....

.....

.....

.....

.....

.....

.....

.....

.....

2. 오희문은 전쟁 중 피난을 다니며 관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 음식, 생필품 등 국가의 재산을 받았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청탁을 받고, 이를 고을 수령인 아들 윤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오늘날의 관점과 조선 전기의 관점에서 오희문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평가해 보자.

- 양식이 떨어지면 큰아들 윤겸이 근처의 수령들에게 양식을 청했고, 그들은 형편이 되는 대로 도움을 주었다. 벼슬살이하는 윤겸 덕에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되곤 했다.
- 임천은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경작할 땅이 없었다. 하지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둔답(관아에 속한 논)이라도 갈아야 할 것 같아서 임천 군수에게 부탁했다. (중략) 처음에는 군수가 확답을 주지 않아 불안했지만, 결국 논 다섯 마지기를 빌리게 됐다.
- 윤겸을 만났을 때 김언신이 관에 바칠 쌀을 감해 주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써 주었다. (중략) 윤겸은 “말씀하신 대로 감해 주어야 하지만 공정하지 않을 듯하여 마음이 매우 편치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윤겸의 답장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 (중략) 내가 이미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억지로 시켜서 결국 노파에게 믿음을 잃고 욕을 당했으니, 뒤늦게 뉘우치고 한탄한들 어찌하겠는가? 이제 경계할 바를 알았으니 앞으로 구차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① 오늘날의 관점:

.....

.....

.....

② 조선 전기의 관점:

.....

.....

.....

□ (찬반 토론형) 하브루타 토론 방법

찬반 토론형 하브루타란 일종의 '짜 토론'으로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이다. 두 명의 학습자가 협동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며 텍스트와 상대 학습자의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모두가 수업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토론 방식이다.

1. 2인 1조로 조를 구성한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한 명은 찬성, 다른 한 명은 반대의 입장을 맡는다.
2. 각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3. 입장을 바꾸어 다시 찬반 토론을 한다.
4. 하브루타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5. 찬성/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두 사람의 의견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다.
6.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며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학습한다.

□ 토론 주제(예시)

- 왜적의 북진으로 한양이 점령하기 직전 북쪽으로 피한 선조의 행동은 타당한가?
- 현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전쟁 중에도 수능 시험이 시행되어야 할까?
- 조선 전기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평등했는가?
- 오희문의 재산을 빼돌린 노비들의 행동은 정당한가?
- 오희문은 전쟁 중 가족과 함께 피난을 다니며 관에서 일하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여러 물품을 받았는데, 이는 정당한가?
- 오희문의 큰딸을 향한 신용구의 마음은 순수한가, 순수하지 못한가?

□ 하브루타 토론 내용 정리하기

토론자 이름:

토론 주제		
회차 내용	주장	근거
1차 토론		
2차 토론 (입장 바꿈)		
합의된 내용		

[부록] 정리 노트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자.

날짜:

이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 (글귀, 사건, 인물)	
기억에 남는 이유	
더 찾아보고 싶은 내용	
이 책의 내용이 나의 삶에 주는 메시지	